

‘육화(肉化)’의 문학적/정치적 상상력

- 『광장』과 『화두』 사이, 혹은 「총독의 소리」에 인용된
「요한복음」 1장 1절 -

윤인로*

〈차 례〉

- 서론: 모조 구원적 간접권력의 정당성과 ‘태초의 말씀’
- 신적인 권위의 육화(incarnation):
정통성의 최종수호자 또는 카테콘으로서의 총독-대심문관
- 숨은 총독의 경륜: 「일본국 헌법」 제9조라는 아파테(기만/홀림)
- 결론: 만세일계 적통의 정통성 비판

[국문초록]

이 글은 최인훈의 연작 「총독의 소리」에서 비교되고 있는 냉전 시기 한반도의 ‘정치적 문화패턴’을 신정정치(테오크라시)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그 연작의 저변, 즉 가상의 총독이라는 ‘적’의 입을 빌려 ‘우리’를 이롭게 한다고 하는 ‘빙적이아(憑敵利我)’의 정치적 의지가 모종의 신학적 사고와 상호작용하는 것임을 선행연구들의 틈새로 규정하고 분석한다. 그렇게 「총독의 소리」에 인용된 「요한복음」 1장 1절(‘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이 전후 냉전 세력의 보편주의적 지배상태(전 지구적 내전상태)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통한 간접권력적 이익분점의 상태를 보장하는 신적인 권위로 정초된 사정을 먼저 검토한다. 그 구체적 사례가 되는 「일본국 헌법」 제9조,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에 구속된 정치문화에 대한 총독의 비판이 분석될 것이다. 이어 총독이 옹립하는 신국으로서의 제국 일본론, 즉 부활할 ‘절대의 육화(肉化)’ 상태, 한반도 지하의 총독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신의 섭리적 지배상태를 검토한다. 끝으로 총독의 자기규정, 즉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는 낱말로 표상되는 아니키적인 것을 미연에 ‘억지하는 자(카테콘)’라는 자기규정이 제국 일본의 부활을 위한 규제적 이념으로 정립되는 사정을 살펴본다.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주제어] 육화(肉化),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정치론, 속죄양,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 카테쿰(역지자), 「일본국 헌법」 제9조

1. 서론: 모조 구원적 간접권력의 정당성과 ‘태초의 말씀’

『광장』(1961)으로 알려진 작가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 연작(I-IV, 1967~1976)은 제국 일본이 패배한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한반도 지하’에 숨은 가상의 조선총독을 중심 화자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제정일치론자”로 규정하면서 “비밀”과 “통치”를 합성하고, 그렇게 숨은 권력으로서 제국의 부활을 위하여 미소-냉전 구도 하 남한과 북한의 지배관계를 ‘정치적 문화패턴’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분석한다. 달리 말해 「총독의 소리」라는 텍스트는 미국과 소련(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치하 한반도 남북의 인민이 자명한 것으로 신앙하는 정치문화를 낫설게 표시한다. 그런 낫섬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때 출발점으로 삼게 되는 지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해지고 있지 않은 요소들은 최인훈 문학의 정치적-기독교적 성분들이다. 제정일치론자 총독, 숨은 그의 목적은 “신국으로서의 제국”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신정정치(테오크라시)적인 경륜을 실험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한반도 남북의 정치문화를 “순하디 순한 贖罪羊(속죄양)”¹⁾의 목양상태로 인도해 가는 것이었다.

숨은 총독이 천황과 그 권위의 불변성을 시간적 중심축으로 삼아(이른바 ‘만세일계’의 신성·정통성에 근거하여)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공박하는 대목에서 시작하기로 하자. 스탈린의 공산주의가 겉으로는 세계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일국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 그들이 야만적이고 몽매한 것으로 매도하고 극복하겠다고 선언한 국경·영토·국적·민족에 도리어 가장 매몰되어 있는 세력이 그들 공산주의자라는 것. 총독은 그들에게 자신의 선언적 말들·이념들을 일부분이라도 실행해보라고, 공산권 내

1) 최인훈, 「總督의 소리 IV」, 『한국문학』 1976년 10월호, 172쪽. 이하 「총독의 소리」 IV'로 표기함. 이 초판본은 전면 한자표기로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 한자어를 살려 인용할 때는 '['] 속에 한글을 함께 표기함. 맞춤법 역시 필요에 따라 현대식으로 수정함.

부에서만이라도 국가적·민족적 경계를 해체시켜보라고 보란 듯이 말한다. 그들은 결코 그럴 수 없는바, 총독에게 공산주의는 오직 ‘말’만으로 이뤄져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일국(一國)메시아주의, 곧 도래할 구원적 국가주의에 뿌리박은 아지프로(선전선동의 말의 체제. 총독은 체제구성적인 그 말의 형질을 분석한다.

이것이 「말」하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권의 실태는 귀축 미영(鬼畜米英)의 그것과 아무 다름없는 권력 정집니다. 이것이 「실재」하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한 공산주의가 「실재」한 듯이 속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쟁입니다”. 「말」의 허무를 「행동」으로 극복하지도 않고선 「말」했으니 「실재」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것이 공산주의자의 말인 것입니다.²⁾

2) 최인훈, 『總督의 소리 3』, 『창작과비평』 1968년 겨울호, 627쪽. 굵은체 표기는 인용자. 이하 인용 및 표기방식은 위와 같음. 본 논문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최인훈 문학의 정치적-기독교적 성분들과 그것에 근거해 있는 정치문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위에 인용된 한 대목, 달리 말해 「요한복음」 1장 1절의 정치적 재맥락화가 갖는 의미를 분석의 출발점에 놓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총독의 소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 즉 탈식민주의, 전후 냉전론, 아시아론, 증립론, 당대 65년 체제론, 소설형식론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경로 하나를 마련해 보려고 한다 (해당 논문들의 서지사항은 참고문헌에 제시했음).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과 문제 제기가 너무 소략하다”는 심사자 한 분의 지적은 온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총독의 소리」에 대한 선행 연구들로서 앞서 제시한 6개 갈래는 그 자체로 또 한 편의 ‘연구사’ 논문으로 다루어져야 할 만큼 각각이 주요 테마들을 내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총독의 소리」 연작을 중심으로 놓은 필자의 여섯 편 연작논문(2022년 3월~10월)에 뒤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연작의 형식을 통해 일단 「총독의 소리」의 정치적-신학적 맥락을 선행연구의 갈래들 곁에 정초해 놓는 일을 좀 더 긴급한 것으로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다. “『광장』 및 『화두』에 대한 분석 같이 「총독의 소리」의 내적 분석 이외의 서술은 사실상 해석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라는 동일 심사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필자와 해당 심사자 각각의 주관이 상충되고 있는 것이므로, 「광장」과 「화두」에 대한 언급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특히 『광장』에 제시되고 있는 “기독교의 도식”과 “코뮤니즘의 도식”에 대한 비교를 필두로) 관심 있는 다른 독자들도 판단에도 맡겨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다. 그럼에도 해석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부분 및 “가독성”을 위해 글의 결론 부분에서 단락을 삭제하거나 문장들을 손질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신정정치”의 이념과 그 함의에 대한 분석에 머물 뿐, 그것이 「총독의 소리」라는 작품의 의의와 가치를 결정하는 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또 한 분 심사자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손질한 부분이 있다. “정치신학이라는 견지에서 현대한국소설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여지에 관한 계보학적 맥락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마지막 심사자의 지적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앞서 언급한 ‘연작논문’의 맥락에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태초·아르케, 신적인 시초·원천의 세계에 이미 언제나 있었던 말씀·로고스. 그 신적인 아르케를 이루는 말씀이 공산주의의 말이고, 공산주의는 그 “로고스 곧 신”[「요한복음」 1장 1절과 일체화된 것으로서 세계에 인입된다. 이는 로고스·말씀으로서의 신·성부가 자신과 나이가 같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한 몸으로 육화된 성자·그리스도로서, 이접(離接)된 이위일체로서 세상에 인입·파송되는 것과 동일한 프로세스이자 프로그램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즉 숨은 총독의 반공적(反共的) 「요한복음」 1장 1절이란 이른바 로고스 크리스톨로지[말씀-육신 기독교론(Logos-sarx christology)]의 정치적 환속화 상태로 발현하는 그리스도-공산주의의 폭력을 표시한다.³⁾ 예전대 스탈린의 공산주의적 지배상태, 그것은 순수이념적 권위(정의·정당성·정통성 레벨)에 의해 뒷받침 받지 못하는 단순한 ‘권력정치’로서, 그 점에서 그것은 미국·영국의 민주주의적 지배상태와 하등 다를 게 없는 것임에도 마치 완전히 다른 것 인양 적대하면서 사람들을 오도(誤導)·호도(糊塗)하는 냉전적 지배의 외부 없는 단짝이었다. “귀축미영, 그들 역시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세계는 ‘실재’하는 민주 사회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에 그들 모두는 언어실재론의 탈을 쓴 해적과 산적들입니다.”⁴⁾ 발화된 말의 내용이 즉각 물질적·구체적 형태(로고스-물-신의 모조 구원적 체제)로 존재한다는, 매혹적인, 참 인양 속이는, 흘리는 마성적인, 그러니까 “적마(赤魔) 러시아”의, 그 마성을 함작하고 분점하는 귀축미영의 로고스실체론, 줄여 말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의 보편주의적 세계분할의 정당성 근거론. 그같은 신적인 말씀의 환속화 테제 속에서, 그런 테제의 가면 쓴 적마·귀축은 다름 아닌 해적과 산적이라는 법 바깥 무법상태의 주관자로서, 그런 무법과

3) 이런 상응관계의 세부 내역들을 시사하는 것은 최인훈의 『광장』속 ‘이명준’의 다음과 같은 메모이다: “**기독교의 도식**: 1. 에덴 시대 2. 墮落[타락] 3. 原罪[원죄] 가운데 있는 인류 4. 구약 시대 여러 민족의 역사 5.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6. 십자가(사망) 7. 告解聖事[고해성사] 8. 法王[법왕(교황)] 9. 바티칸궁 10. 천년왕국 / **컴퓨터의 도식**: 1. 원시공산사회 2. 사유제도의 발생 3. 자본주의 속의 인류 4. 노예, 봉건,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 5. 칼 맑스의 출현 6. 낫과 함마(증오) 7. 自我批判制度[자아비판제도] 8. 스탈린 9. 크레믈린궁. 10. 문명 공산사회.”(崔仁勳, 『廣場』, 정향사, 1961, 189쪽). 고딕체 표기는 인용자. 전집판에서는 “그리스도교”와 “스탈리니즘”으로 수정되었으므로 각각의 10항이 추가되었음(최인훈, 『광장 / 구운몽』, 문학과지성사, 1976, 54쪽).

4) 최인훈, 「총독의 소리」 III, 627쪽.

합법 간의 관계를 필요에 따라 조절하고 조합하는 법 위의 힘으로서, 그런 한에서 합법과 불법의 표층적·공개적 경계 이면에 숨은 신적인 권력으로서, 적마와 귀족 그 각각의 아래 곳곳의 권력들에 간여하고 개입하는 이해 관계를 가진 제3자로서, **간접권력**적인 섭정관계의 숨은 구축자로서, 실질적 위협 없이, 위기 없이, 책임짐 없이 실리를 취득한다.⁵⁾

2. 신적인 권위의 육화(Incarnation):

정통성의 최종수호자 또는 카테콘으로서의 총독-대심문관

그런 모조 구원적 취득의 과정과는 다른 다스림의 형태가 총독의 제국, 총독이 말하는 신국으로서의 제국이다. 저들 귀족과 적마가 합작하는 로고스 실체론의 실리주의로부터, 동물화된 합리성의 체제를 한정할 수 있을 근본 규범적 이념의 부재상태로부터, 그런 권위-이념 없는 권력정치 일변도의 패도(覇道)로부터 제국=신국으로서의 일본은 다음과 같이 차이화된다.

저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보장하는 권위가 ‘인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국에 있어 관념과 실재는 황실에 육화(肉化)되어 있으며 황실은 신(神)에서 나왔으므로[—“**황실에 의한 절대의 육화**” 속에서] 제국에 있어서의 관념과 실재는 유착은 유착이로되 그 권위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입니다[그런 “육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천 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⁶⁾

5) 이는 법학자 칼 슈미트의 다음과 같은 문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보호할 수 없으면서도 복종을 청구하고 정치에 부수되는 위난을 떠안지 않은 채로 명령하고자 하며 책임을 다른 심급들에 떠넘기고서는 그 심급들을 매개로 [강]권력(Macht)을 집행하고자 하는 **간접권력(potestas indirecta)**.” (Carl Schmitt, *Der Leviathan in der Staatslehre des Thomas Hobbes: Sinn und Fehlschlag eines politischen Symbols*, Hamburg: Hanseatische Verlagsanstalt, 1938, p. 127) 곧이어 검토될 것처럼, 그런 ‘숨은 신적인 권력’에 대한 총독의 비판이 천황(황실)이라는 ‘절대의 육화’ 및 ‘그리스도의 도래’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모종의 그리스도-정치론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집약하기 위해 다시금 슈미트의 한 구문을 인용해 놓기로 한다: “정치신학에서 정치기독학으로의 이행.”(칼 슈미트, 『정치신학 2: 모든 정치신학이 처리되었다는 전설에 대하여』, 조효원 옮김, 서울: 그린비, 2019, 11쪽)

6) 최인훈, 「총독의 소리」 III, 627쪽. 굵은체 표기는 인용자. 인간적 권위와 신적인 권위를 구분함

관념이 실재로(서) 발현하는 일, 그것은 권위의 인간성(반)으로는 불가능하다. 관념을 행동으로 지양(Aufhebung)하여 실재로(서) 발현시키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신의 일이며, 신의 그 일이 행해지고 있는 상태를 두고 총독은 ‘육화’라고 말한다. (‘기기신화(記紀神話)『고사기』와『일본서기』’에서 말해지는) 특정되지 않으며 설명되지 않는 무궁극적인 신의 직계로 내려온, 신적인 권위의 정통적 일계로 이어져온 황실에, 즉 모든 가치의 원천인 천황(황실)에 육화되어 있는 관념과 실재는 적마·귀축과는 달리 마력적 거짓으로 접합시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상보적으로 이접된 하나로서 ‘유출’된다. 그렇게 천황(황실)에 육화된 절대로부터, 그 가치의 절대적/순수 원천으로부터 관념(예컨대 만세일계의 신통기, 팔굉일우와 천양무궁의 시공간, 천황에의 귀일, 신국의 규범)은 구체적 실재들(예컨대 동심원적인 혹은 피라미드적인 공영권, 내선일체·창세기명, 땅위의 제국)과 더불어 상보적 일체로서 유출된다. 그런 절대로부터의 직접적 유출이라는 범형모델에 있어 억지되어야 할 적은 그런 직접성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간접권력적 힘으로 설정된다. 다름 아닌 신의 일, 즉 이념·규범을 실재로(서) 발현되게 하는 신적인 권위연관이 그같은 유출의 프로세스로서, 그것과 연동되는 적대의 프로그램으로서 가동되고 관철된다. 그런 상태의 총독적 표현이 “육화”『요한복음』1장 14절 였던바, 그것은 천황(황실)이라는 신적인 육화상태·권위상태 바로 곁에서, 다시금 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의 적마·귀축적 환속화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된다. 말했으니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공산과 민주의 지배이법은 실재를 호도하는 마적(魔的)이고 주술적인 힘인바, 총독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같은 거짓 구원적 인간의 일을 저지하고 푸닥거리하는 힘으로서, 신의 일을 (대)행하기 위해 신과 이위일체화 된 육화상태의 힘으로서 인입된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충돌하는 두 개의 로고스·그리

로써 정초되는 지배관계의 정당성. 이 곁에다가 육화 혹은 육화된 로고스에 관한 현상학적 저작에서 제시되는 구분법 하나를 덧붙여 놓고자 한다: “의미, 개념, 표상 혹은 이미지 등이 형성되고 인간의 방식으로 말하고 추론하는 그리스적 로고스” 대(對)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계 이전에, 그리고 어떤 세계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기에서 요한이 ‘삶/생명의 말씀le Verbe de Vie’(요한 1서, 1)이라고 이해한 말씀.”(미셸 앙리, 『육화, 살의 철학』, 박영옥 옮김, 서울: 자음과모음, 2012, 39-40쪽)

스도가 있게 된다. 적마·귀축에 의해 참칭된 그리스도와 총독이 말하는 육화된 그리스도가 그것이다. 총독의 적대가 그 지점에서 설정되는바, 로고스 기독교론의 정치형식 즉 「요한복음」 1장 1절은 총독적 적대구성의 현상이자 근거이다. 이념과 현실이 맺는 실제적 관계에 눈뜨지 못하게 만들고 그 둘을 착종된 상태로 받아들이게 하는 적마 러시아와 귀축미영의 “무당들”, “물신(物神)주의자들.” 그들 무당들이 행하는 홀림의 주술·주박, 그들 물신주의자들이 말에의 맹목·광신 속에서 ‘말 즉 구체물’의 신앙도식을 따라 봉헌하는 거짓 신[마신(魔神)]. 이는 육화된 절대로서의 천황(황실) 즉 국체에 대한 위협으로 떠올랐던바, 총독은 그것에 맞서 국체를 다음과 같이 변증한다: “제국의 국체 관념은 엄격한 사실(事實)주의이며, 그 어떤 방법가설의 실제화도 용납하지 않고 황실에 의한 절대의 육화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같은 신념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다같이 배격할 수 있는 사실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⁷⁾

국체의 사실성 혹은 사실적 국체, 예컨대 일동 제창하는 만세삼창[반자이! 반자이! 반자이!]의 갈채형식 속에서 발현중인 직계·일계의 황실, 가치의 절대적인(신화-역사적인) 본원을 한 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천황이라는 사실. 그같은 사실의 빛·힘 앞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구체적 실현이 거듭 지연되는 가설적인 방법이자 수단으로서, 그렇게 가설(假設)된 거짓 실체의 분석술·미장기술로서 폭로·개시될 것이었다. 그 미장(美粧)의 마성·마력에 주박들린 자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굿관’에 홀린 자들은 아나키의 씨앗들·잠재자들, 달리 예컨대 총독이 주시하는 “不逞鮮人[불령선인(불평불만 분자로서의 조선인)]”의 “불령한 힘” 혹은 “이단”⁸⁾의 불법적 힘으로서 미면에 억지되어야 할 적이다. 그들 적마와 귀축이 세계를 향한 적·거짓·무질서·무법으로 지목되는 과정은 피아식별하는 황국 일본이 다름 아닌 사실로서 발현하는 노모스의 나라, 즉 질서화하는 사실에 뿌리박은 규범적 영도국·지도국으로 설정되는 것과 동시에 이뤄진다. 지하·비밀에 근거해 한반도

7) 최인훈, 「총독의 소리」 III, 622쪽.

8) 최인훈, 「총독의 소리」 IV, 194쪽; 201쪽.

를 항시적 전장으로 인식했던 패전 이후의 총독이 제국적 정통성의 최후적인 수호자로서 지켜내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사실·아군·질서·노모스였다.⁹⁾ 그것들이 천황(황실)에 육화된 절대성의 중심을 이룬다. 총독의 사실주의, 그 신정정치적 육화론은 그렇게 적마·귀축적「요한복음」1장 1절의 거짓 로고스실체론으로부터 스스로를 준별하고 차이화하는바,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총독의 사실주의가 '사실 감각'으로 달리 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감각, 사실에의 감각이란 절대의 권위를 체화한 천황에게로 '귀일(歸一)'하는 신민의 일체화의 실감인바, 이는 천황과의 직접적 접촉상태를, 천황과 신민 사이에 개재된 간접권력적 세력이 일소된 상태를, 곧 천황으로부터의 거리=0에서 가능해지는 '일군만민'의 지배형식을 표시한다. 부(父)·왕(王)·신(神)으로서의 천황의 권위연관 속에서 정초되는 그같은 일군만민에의 공통적이며 직접적인 실감신앙이 귀축의 민주적 간접성과 적마의 공산적 공동성을, 그것들의 근원이자 산물인「요한복음」1장 1절을, 그 모조[擬似(pseudo)] 로고스-기독교정치를 파기할 것이었다. 총독의 육화론, 신적인 권위연관의 체현론을 그같은 파기와 무효화의 힘인 동시에 제국 국체의 정당성 및 정통성을 보위하는 최종심적인 힘으로 새길 때, 질문은 다음과 같이 된다. 총독은 누구이며 그가 말하는 '경륜'은 어떤 특질을 띠는가, 숨은 총독의 전후란 무엇인가.

실마리로 삼게 되는 것은 한반도 지하의 총독이 바라보는 남한 민주주의의 상태이다. "반도인들에게 애당초 없는 도덕적 품성을 발휘하라는 선거라는 제사야말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닌 자유의 무거운 멍에 아래 비틀거리고 있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인을 부르고 있습니다."¹⁰⁾ 신의 가호, 신이 보장하는 안

9) 이와 직결된 것은 지하 총독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원래 총독부는 모국의 정치 정세에 관계없이 제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입장에서 행동한 터라 가장 공정한 입장이며 더욱 오늘과 같이 제국의 정책이 안팎으로 직선적인 표현을 피하고 완곡하고 거슬림 없는 분장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에는 총독부 당국은 제국 정책의 가장 정통적인 수호처守護處이자 상징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최인훈, 「총독의 소리」 III, 622쪽)

10) 최인훈, 「總督의 소리」, 『신동아』 1967년 8월호, 482쪽. 이하 「총독의 소리」 I로 표기함.

전과 후생을 얻기 위해 다수 제주(祭主)들 혹은 선거권자들이 뽑아 신에게 헌상한 제물(대표자). 다름 아닌 제정일치론자답게 귀축미영의 민주적 선거를 제사·현상사로 다시 정의한 총독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하는 선거의 자유가 남한 체제를 끝장내리라고 확신한다. 아니나 다를까 1967년 5월 제6대 대통령선거로 박정희가 당선되자 총독은 제국 회복의 날이 곧 도래할 것임을 예감하고, 한반도 지하에서 암약하는 지하총독부 예하 밀정들에게 그날을 준비시킨다. 총독에게 남한의 인민은 선거의 자유를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바, 그 자유라는 것이 그들 인민의 주체적 투쟁과 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의 제3자 귀축미영에 의해 부과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총독은 남한의 인민이 향유는커녕 감당하지조차 못할 자유의 하중에 허덕이고 있다고, 그렇기에 그들은 다시금 총독 자신을 요청하고 있다고, 총독이 수호하는 제국의 동심원적 체제 내부에서 결정적인 응분의 자리가 다시 마련되길 원하고 있다고, 그 자리·몫을 천분의 직분으로 삼아 안분(자족)의 전체주의를 회복함으로써 자유의 불안과 민주 혼돈과 다수(결)의 아나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총독의 비밀화된 경륜은 바로 그런 벗어남·풀려남·해방의 욕구를 기획하고 증강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었다. 눈여겨보게 되는 지점은 제정일치론자로서 제국의 옛 영토에 잠복해 있는 ‘노병(老兵)’ 총독의 상황 인식과 자기 인식인바, i) 자유의 괴로움에 따른 인민의 비명소리와 구조요청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ii) ‘그들은 본인을 부르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집약되는 그런 인식에 따라 스스로를 자유로부터의 해방과 구제를 실현시키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iii) 그같은 해방이 노예상태로의 복귀일지라도 그것이 인민에게 구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믿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 셋은 『화두』에서 최인훈이 일본어 번역으로 읽었다고 밝힌 도스토옙스키와 관계되어 있다. 이반 카라마조프, 그가 구상한 90세 ‘대심문관(최고 종교재판장)’ 역시 그리스도가 인민에게 부여했던 자유를 두고 “무서운 노예상태와 혼돈”을 불러올 “무서운 선물”로 규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유죄를 판결하는바, 그리스도에 대한 대심문관의 논박은 숨은 총독이 귀축미영의 로고스실체론을

반박하는 맥락을 앞질러 선취하고 있다: “그리스도 너의 이름으로 우리는 인민에게 오직 자유의 포기과 복종만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리라고 설교할 것이다.”¹¹⁾ 그런 의지를 따라 대심문관이 근본적으로 문제시하는 것이 있다. 「요한복음」 속 “진리[Veritas]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8장 32절]는 그리스도의 말이 그것인데, 대심문관에게 그 말은 원천적으로 파괴되고 봉쇄되지 않으면 안 될 로고스·그리스도의 특질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다른 아닌 자유 즉 아나키를 증강시키는 진리·베리타스란, 대심문관이 억지하고자 하는 적·적그리스도[Antichristus]의 본질인 동시에, 귀축미영의 자유·민주적 로고스·그리스도를 적으로 설정한 지하 총독이 저지하고 방지하려는 아나키의 발현원천이기도 하다. 그렇게 억지·저지하는 자(막고 붙드는 자[Katechon]),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카테콘(κατέχων)”[“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2장 6절; 7절]으로서의 대심문관-총독.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베리타스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시초였으며, 문제의 해결은 보편화된 진리·베리타스를 참칭된 모조 신성으로 전도시켜 폭로하는 일로부터, 진정한 신이 육화된 구체적 권위·아우토리타스를 재정초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대심문관에게 기존의 그리스도는, 대심문관으로서의 총독에게 귀축미영의 로고스·그리스도는 신의 이름 아래(구원과 후생의 이름 아래) 양떼를 흠어 낫선 길로 몰아넣는 실패한 사제·목자(牧者)들의 권력인 동시에 그런 실패를 미연에 막지 못한 절대적 권위 레벨의 오류이자 결격으로 규정된다. 무오류적 절대에 오류가 발생해 있는 것이므로 그 권위는 신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다. 총독이 말하는 절대의 육화체, 곧 천황(황실)이라는 권위연관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었으며, 그런 권위의 화육(化肉)에 간접적 중간매개 없이 ‘직접 닿는’ — 달리 말해 ‘천황에 직예(直隸)’[직령제

11)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상권, 이태우 옮김, 열린책들, 2000, 133쪽. 최인훈에게 그런 대심문관의 정치적 상상력은 북한에서 경험했던 정치문화의 핵심으로서의 “자아비판회”를 “굿”으로 표현하는 하면서 그 주술적 작동원리를 제시한 다음 한 대목 속에서 변주된다: “모든 굿에서처럼 이런 굿[=자아비판회]에서도 스페인의 시골구석 이단심문소의 담당 승려의 자신을 로마에 있는 교황과 구별하지 못하였다. 그럴 것이었다. 그 순간에 중개인이지만 피조물인 승려의 육체가 스페인의 촌구석과 로마에 갈라져 있을 뿐 하나이신 신은 그 두 곳 모두에 꼭 같이 입하시는 신이었기 때문이다.”(최인훈, 『화두』 1권, 문학과지성사, 2008, 47쪽)

354호 「조선총독부 관제」(1910) 제3조¹²⁾하는 — 총독은 부과된 자유 속에서 올려나오는 인민의 비명과 부름을 듣는다. 총독의 ‘경륜’이란 실제적 집행권력이 그런 신적인 권위에 의해 뒷받침된 상태에서 구동될 수 있게 하는 일에, 그 과정에서 권위의 절대성이 보위되고 항존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다시 말해 권위 · 정당성 · 정통성의 레벨과 권력 · 통치의 결정 레벨이 맺는 이접적 선순환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에 관계된 것이다.

3. 숨은 총독의 경륜: 『일본국 헌법』 제9조¹³⁾라는 아파테(기만/홀림)

신이 육화된 그리스도와 절대를 육화한 천황(황실)을 모종의 기능적 등가물로 동시에 가동시키는 총독, 거리=0의 그런 육화상태를 깨고 어지럽히는 중간적 간접력을 억지하고자 하는 총독의 “경륜”¹²⁾. 그렇게 권위와 권력 간의(군립과 통치 간의) 관계설정을 최적화하는 일에 관계된 총독의 비밀화된 사려와 배려란 경륜이라는 낱말의 신학적 성분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거짓] 일꾼”¹³⁾에 관해 말하게 될 바울의 한 문장을 인용하게 된다: “때가 차면 신의 경륜οικονομία이 이루어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될 것입니다.”[「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1장 10절 경륜,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오이코노미아’이다. 신의 경륜 · 오이코노미아는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신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으로, 장차 때가 되면 그 계획이 “예정”대로 이뤄지게 하는 “신의 뜻 · 의지의 비밀[뮌스테리온]”[1장 9절]로 달리 표현된다. “시초부터 신 안에 감춰져있던 비밀의 경륜”[3장 9절], 그것

12) 최인훈, 『총독의 소리』I, 480쪽.

13) 『광장』의 이명준이 인용한 바울의 편지는 다음과 같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욕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 고린도 후서 十一, 三”(최인훈, 『광장』, 42쪽. 이는 『개역한글판 성서』에서의 인용이다) 정확하게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11장 23절이며, 그 의미는 동일한 편지의 11장 13절에 앞질러 제시되어 있다: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여먹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의 구체적 내용을 집약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신체이다. 이는 무얼 가리키는가.

오이코노미아란 집안 살림의 계획·운영·배열·질서화를 뜻하는바, 그런 살림살이를 주재하는 것이 신일 때, 오이코노미아는 신의 한 지붕·집안에 있는 피조된 것들 일반의 하나된 조화를 향하고 있다. 때가 무르익었을 그때의 조화상태(투쟁의 소멸상태)란 다름 아닌 신과의 이위일체 그리스도를 머리/원수元首로 둔 신체의 원활한 신진대사상태이다. 이른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팔다리”, 그 “몸 전체는 머리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각의 마디와 힘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 신의 계획대로 자라나는 것”[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2장 19절인바, 바울이 말하는 신의 비밀화된 경륜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의 팔다리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3장 6절 일로서 장차 발현되고 현시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세계-신체, 궁극적·절대적으로 바로잡히게 될 질서의 세계체(世界體). 바울에게 그같은 신의 경륜·오이코노미아는 신이 자신과 일체화된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뤄지도록 했던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의 그런 대행·대리·사역(使役)은 “그리스도 안에 신의 충만한 신성이 육체가 되어[소마티코스(육체적/구체적으로)] 머물러 있”기에,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권원(權原)[아르케]과 권능[엑소우시아]의 머리”[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2장 9절; 10절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신성으로 채워진 그리스도, 그 신적인 육체가 바울 안에서(도) 활동한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모두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해 모두에게 경고하고 가르칩니다. 신께서 신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내게 맡긴 사명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일꾼이 된 나 역시도 내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는[에네르게오] 그리스도의 활력[에네르게이아(작용)]에 힘입어 노력하고 있습니다.”[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1장 28~29절 그렇게 바울의 한 몸으로 하나 되는 셋, 신-그리스도-바울. 말하자면 바울적 육화의 중첩. 내밀(內密)하게 이접된 그 셋의 상보적인 권위-권력으로써,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조화

와 질서의 세계체가, 신의 집안 살림살이의 최적화된 배치가, 즉 신의 경륜 · 오이코노미아가 이뤄질 것이었다.

바울적 육화의 중첩, 그 이접적 연쇄 · 연합 · 연동의 관계는 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그리스도와 바울 사이에 다른 제3자적 매개가 개재되지 않은 직접(直接)적인 것일 때 구동될 수 있는바, 바울이 거듭 경계하는 것은 그런 직접적 이접성을 깨고 투입(闖入)하는 모조 구원적인 힘, 참칭당한 신의 사이비 로고스, 모조 구원적 아파테(ἀπάτη)[속임 · 사기 · 홀림 · 현혹 · 거짓 · 기만]의 간접권력이다. 바울은 쓴다. “여러분은 헛된 철학[필로소피아]의 아파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인간이 만들어 전해 준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닙니다.”[‘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2장 8절] 그 기만적 철학성을 채우고 있는 인간적 · 세속적 지혜로의 이끌림 · 홀림,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 · 근원으로 하는 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달리 공박하는 바울의 용어가 있다. “보이지 않는 신”과 그런 신의 구체적 “형상[에이콘]” 사이에서, “아버지”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둘 사이에서, 성부 · 신의 경륜과 그것이 구체화될 성자 · 그리스도의 나라 사이에서 암약 중인 “암흑의 권능”[‘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1장 13절]이 그것이다. 그런 암흑 · 흑막의 권능 · 권력정치, 그 간접성의 나라, 간접화하는 땅위의 나라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울에게 그들 거짓 구원적 적들은 가치 일반의 원천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질서의 세계체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왕좌들, 통치권들, 권능들을 비롯해 모든 것이 그에게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본원[아르케]”[‘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1장 16절; 17절] 속에서 무위로 돌려질 것이었다. 그같은 진정한 육화를 이룬 그리스도, 그의 파송과 임재라는 신의 일에 대해 총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념을 행동으로 극복하여 실재에 유착시키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며 그러므로 이 육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천 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오늘날 세계에서 이 종교

적 원리가 국제로서 보존되고 있는 것은 오직 일본 제국뿐입니다.¹⁴⁾

총독의 전후, 그것은 귀족과 적마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된 「일본국 헌법」, 일명 ‘평화 헌법’에 대한 그의 비판을 통해 달리 표시된다. “환상의 〈말〉인 평화 헌법이 실재하는 국제(國體)를 범하지 못하며 이 은인자중하는 시기에 총독부는 국제보지(國體保持)의 간성(干城)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¹⁵⁾ 숨은 총독에게 보이는 「일본국 헌법」 제9조의 평화 체제¹⁶⁾란 현재 실재하는 태초의 말씀이며, 간접적·간접적 제3자의 환상적인 로고스·미사여구이고, 홀리는 아파테의 거짓 구원적인 이데올로기이다. 귀족과 그들의 괴뢰/파트너인 본토의 권력집단이 함께 구축한 전후의 그 모조 실재란 진정으로 실재하는 제국의 국제를 완전히 잠식할 수 없는바, 그 까닭은 식민지 조선의 지하총독부가 여전히 건재하면서 국제를 수호하는 방패와 요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 그것에 뿌리박은 귀족·적마적 로고스 정치론의 전후적 결정판으로서의 평화 헌법. 숨은 총독에게 그 전후-평화의 체제란 다름 아닌 전시-전쟁정치라는 속내·흔네를 은폐한 외양·타테마에였으며, 평화의 이름으로 달리 재개되고 연속되는 전쟁의 폭력연관이었다. 절대를 육화하였으므로 신성한, 그렇기에 침범될 수 없는 천황(황실), 그것으로 체현되는 국제. 이같은 정통성의 근거연관은 지나간 제국의 비밀이자 미래인 식민지를 통해서만, 제국을 참조해 그 내부 지배모델을 재생산하고 있는 전후 한반도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남북이라는 적대적 합작체의 그런(리)모델링을 제국의 부활과 재래를 위한 방향으로 비밀리에 인도해 가는 지하총독부의 수반을 통해서만, 즉 ‘전후 총독’의 숨은 경륜이라는 제국의 최종심

14) 최인훈, 「총독의 소리」 III, 627쪽.

15) 최인훈, 「총독의 소리」 III, 627쪽.

16) 제9조는 “제2장 전쟁의 포기放棄(버리고 돌보지 않음)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2개의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회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 2 앞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이외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日本國憲法』, 1946. 11. 3. 國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2023. 4. 1. 접속)

급이 발현됨으로써만 수호될 수 있는 것이었다. 총독의 전후, 그것은 한반도의 지하로부터 발현·발신되는 총독적 경륜이 절대-육화체로서의 천황에게 비밀리에 직접 직예하는 모종의 사목(司牧)권력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의 다른 말이다. 전후 총독의 다음과 같은 말이 다시 올 제국을 위해 일하는 밀정·군인·경찰에게 전파를 타고 파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우신조(天佑神助)인저. 귀족들은 난데없이 반도를 동강내고 우리 열도를 통합점령한 것입니다. [...] 분단은 반도에, 통일은 제국에. 반도는 제국의 운명의 마지막 고비에 서 또 한 번 제국이 복된 땅이며, 반도 자신이 제국을 위한 순하다순한 속죄양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 아니 신풍(神風)입니까.”¹⁷⁾

총독은 반도가 제국의 위기시에 속죄양이 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동안 씨를 뿌려왔고 공들여 가꾸었으며, 식민지·식민지인들로부터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두었던바, 총독은 제국=신국이 해체될 비상시에 그 국체의 머리·원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도·반도인이 자발적으로 희생과 대속의 양·떼로 인도되도록 사려의 목양을 지도했다. 그럴 때 저 제정일치론자라는 총독의 전후적 자기규정은 총독이 제의로서의 통치를 주관하는 최고의 제사장이자 그 제의에 봉헌될 양떼를 이끌고 먹이는 인도자·통솔자라는 점을 표시한다. 그렇게 복종하는 속죄양, 귀족의 민주·선거제도 속에서 “자기희생”이라는 멸사봉공의 대의를 버리고 “돈벌이”에 몰두하는 반도인들, 제국이라는 제의정치의 제단에 바쳐질 희생양떼의 습성을 버리고 단순한 경제적 동물로 전락하는 반도인들, “1억 전원 옥쇄”를 곧이곧대로 따라 “2천만 전원 타락”으로 향해 가는 반도인들. 전후 총독에게 그들은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의 격세유전 집단”이었다.¹⁸⁾ 신성의 육화상대에 뿌리박음으로써만이 사사화된 삶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신민의 일상 실감을 잃어버린 채 세속적 동물의 파렴치에 몰들어가는 반도인들. 그들은 목양자 총독의 사목적 경륜 속에서 귀족·적마적 로고스실체론으로부터 해방되

17) 최인훈, 「총독의 소리」 IV, 172쪽.

18) 최인훈, 「총독의 소리」 I, 482쪽.

어 자족된 노예상태의 울타리 안으로 되돌아갈 것이며, 그렇게 다시금 제국의 희생양으로서, 응분(應分)의 그 자리·기능·일·몫 속에서 분수에 맞게 부과되고 교환될 모조 구원의 후생상태로서 목양될 것이었다.

4. 결론: 만세일계 적통의 정통성 비판

말하자면 육화의 정치적 상상력, 그것이 제국 일본과 귀족미영의 제국을 다르게 인식하고 차등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맥락에 주목하게 된다.

〈제국〉이라는 것은, 늘 文明的 全蓄積의 肉化[문명의 전 축적의 육화]라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종교적 권위와 같은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옛날 〈제국〉의 의식적[儀式的] 무당의 후예인 시인들은 〈제국〉적인 것에는 근원적 기억을 환기당하는 것이며 좌파 이데올로기에 集團憑依[집단병의]된 민중의 〈제국〉 부흥광신운동이던 스페인내란에 외국에서 글장이 노래꾼들이 달려간 것은 그 때문입니다.¹⁹⁾

반도인들에게 꿈과 현실의 분리나 유출을 허락하지 않고, 토속적 실감의 지면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파충류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힘을 들여야 할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진다는 것은 〈꿈의 肉化로서의 제국〉이라는 我國體[아국체]로부터의 절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행동은 그대로 꿈이며, 꿈이 즉 행위입니다. 반도는 제국의 꿈입니다. 반도인들이 꿈을 가진다는 것은 그러므로 제국의 영토를 절도하는 일이 됩니다. 총독부는 이런 [조]선인을 모두 불령선인으로 봅니다.²⁰⁾

19) 최인훈, 「총독의 소리」 IV, 183쪽.

20) 최인훈, 「총독의 소리」 IV, 195쪽. 굵은체 표기는 인용자.

신과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육화된 것처럼, 그리고 그 육화를 통해 신의 경륜·오이코노미아가 이뤄지는 것처럼, 이를 모델로 총독은 제국이라는 것을 신의 살림살이·경영술로(서) 축적된 문명의 육화상태로 설정한다. 그렇기에 총독은 그런 육화상태의 제국이 종교적 권위로 기능한다고 말한다. 그가 이런 식으로 제국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귀족미영 제국의 기능하는 그 권위가 신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임을 논증함으로써 신적인 권위체로서의 일본(신국=제국으로서의 일본)을 준별하고 차이화하기 위해서이다. 총독에게 귀족미영 제국 혹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제국을 창건한 민족은 전체 문명의 축적(이를 총독은 “ x ”라고 쓴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들의 제국은 자신의 힘 혹은 무력과 권력으로써 그 x 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리권”을 넘겨받는 것이며 그런 “계승”의 ‘구조’적 배치 속에 놓여있는 것일 따름이다. 그같은 미지(未知)·비밀의 x , 그 신적인 것을 창조한 힘의 집약체가 제국 일본이라는 것이 총독의 입론이다. 귀족과 적마와 총통의 제국은 x 의 창조력이 아니라 x 의 관리권(을 독점하기 위한 투쟁의 힘)인바, 총독에게 그들의 관리권·독점권이란 “단지 <제국>이라는 자리에 취임함으로써 손에 쥐어진 職分上[직분상의 권한, 즉 職權[직권], <제국이라는 직분에서 얻어진 직권>”이며, 그런 한에서 “지난 세월 귀족들이 누린 힘이란 문명적 축적의 憑依力[명의력이었던 것]²¹⁾이다. 그 명의력, 그것은 귀족의 로고스실체론을 ‘무당’의 기만술·빙자술로 보는 총독의 규정에 걸린다. 그 명의력, 거짓 육화의 관리권력은 직분·자리의 배치에 따라 기능 및 가동의 여부가 결정되는 부수적·인간적 권위력이자 그 자체로서의 권위력, 권위 그 자체의 신적인 힘은 아니다. 오직 제국 일본의 국체=황실이라는 절대의 육화체만이 가치 일반을 발원시키는 원천으로서, x 를 창출하고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권위력인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는 총독의 말이 ‘꿈의 육화로서의 제국’이다. 그 꿈이란 해방적인 이상·이념·이데이며 노예상태로부터의 진정한 풀려남을 향하는 힘의 근원을 표시하는바, 반도인을 타겟으로

21) 최인훈, 「총독의 소리」 IV, 180쪽.

삼은 전후 총독이 제국의 부활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경륜의 방향은 그런 꿈이 현실 그 자체로 구현되어 있다고 온전히 믿도록 하는 일, 반도인이 현실 바깥을 향하는 꿈을 갖지 못하도록, 그런 꿈을 가진 이단적 불령선인을 억지하고 예방하는 일, 현실 바깥으로의 꿈으로 비추어 현실의 모조 구원성에 눈뜰 수 없도록, 그런 꿈/절대를 육화한 것이 다름 아닌 제국이므로 제국의 바깥이란 있을 수 없음을 실감하도록 만드는 일이었다. 총독적 경륜의 그런 벡터가 반도인을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유는 식민지 한반도야말로 '제국의 꿈', 제국 일본의 부활과 재래를 가능케 하는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이다(이른바 '생명선'의 총독적 판본). 구원의 이름으로 날인된 '꿈 즉 현실'의 울타리 안에서 반도인을 희생양으로 목양할 수 있을 때, 제국 일본의 근본이념은 구체적 행동으로 발현할 수 있게 되며, 그같은 꿈 즉 사실의 상태, 꿈=사실의 상태, 꿈과 사실 사이에 아무런 이물질이 끼어 있지 않은 순수한 직접의 상태로서만 제국 일본은 재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다시 도래할 신국으로서의 제국 일본, 그 국체=황실이라는 절대적 육화체의 수족이 되어야 할 귀족, 천황(황실)을 머리·원수로 둔 조화의 세계체 안으로 귀속되고 귀일해야 할 귀족과 적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육화-정치론을 내걸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절대성을 무기로 제국 일본적 질서화의 상태에 중지부를 찍었다. 다름 아닌 “絶對武器[절대무기] 곧 “원자무기”가 그 일을 행했다. 총독의 전후 냉전체제론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원자무기는 지중해문명의 계승자로서의 미영세력이 지닌 힘의 그러한 이점[문명의 독점적 관리권·사용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국력의 비군사적 분야에서 크게 떨어지는 러시아는 1천만의 목숨을 잃고, 잿더미가 된 국토를 가지고 냉전을 겪었으나, 이 절대무기를 함께 가짐으로써, 동계 문명의 正統繼承者[정통계승자와의 배짱 놀음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²²⁾

귀족과 적마는 스스로가 창출한 것이 아닌 문명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정당성근거로서의 육화상태에 뿌리박은, 육화의 그 권위력과 그

22) 최인훈, 「총독의 소리」 IV, 181쪽.

것의 구체적·폭력적 발현이자 절멸적 집행력인 절대무기로 세계를 양분하는 보편주의적 구원의 체제를 합작한다. 그렇게 합작·공모하는 귀축-적마라는 두 머리의 제국, 그 구원[Erlösung]적 신성과 절멸[Endlösung]적 절대성 간의 합성체에 의해 그들 쌍두 제국의 바깥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야말로 숨은 총독의 전후적 적대가 구성되는 장소·전장이다. 총독에게 귀축과 적마 두 제국이 그들 문명 전체의 독점적 육화상태 혹은 정통계승자의 자리를 놓고 ‘배짱 놀음’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합작이 세속적·인간적 체제에 국한된 사이비임을 달리 표시한다. 투쟁하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건 육화의 신성과 원자무기의 절대성이란, 그리고 그런 힘에 의해 편성된 세계분할의 질서란, 그런 힘으로 인해 변경불가능하며 비가역적인 것으로서 확고부동한 기정사실로 자타가 공인하게 되는 그 세계질서의 편향성·편중상태·아나키성이란, 신화로부터 시작해 변경 없이 지속되고 있기에 질서의 항구적인 척도로 정립 가능한 제국 일본의 국체에 의해, 숨은 총독의 지하총독부가 최종적으로 수호하고 있는 신국=제국의 진정한 정통성에 의해, 신적인 적통·혈통의 황실이라는 순수한 시간축·종축에 의해, 저 유일무이한 머리·원수로서 천황이 발하는 끝없이 무한한 성충에 의해 바로잡히게 될 것이었다. 귀축과 적마의 공통적 힘을 표상하는 저 ‘지옥의 불’은 황조신들로부터 직계로 연원하는 천황(황실)에 의해, 그 직계의 ‘무궁한 성충’에 의해 ‘맞불’지 쪼김으로써 다시금 ‘균형’을 취득하게 될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皇祖**(황실의 조상신들)의 무궁한 **聖寵**(성취)은 버림 없이 이 적자들의 대지를 건져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제정일치론자로서 본인은 비로소, 저 지옥의 불(원자폭탄 투하), 기억의 골짜기를 태우는 불에 맞불을 지른 한 가닥 均衡(균형)의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²³⁾

그런 맞불과 균형을 통한 적대의 되살림, 이를 보장하는 천황(황실)이라는 신적인 권위의 진정한 육화상태를 변증하고 있는 총독. 그 변증을 논박하기 위해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총독이 자신의 경륜론을 위해 2천 년

23) 최인훈, 「총독의 소리」 IV, 172쪽. 굵은체 표기는 인용자.

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것’을 거론하는 대목이다. 총독의 목소리에 빙의된, 그 목소리를 창출한 작가 최인훈의 바울 인용(그리스도의 거짓 일꾼론) 곁에서 총독에 대한 논박을 위해 인용하게 되는 바울의 한 문장이 있다: “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신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이기 때문입니다.”(「디모데에게 보낸 첫째 편지」 1장 4절) 말하자면 바울에 의한 신화-정치론 비판, 만세일계 적통의 정통성 비판. 신의 육화로서의 로고스·그리스도를 참칭한 거짓 구원력이라고 적마-귀족적 경륜의 폭력을 폭로했던 총독의 천황론(절대의 육화-정치론) 역시, 그리스도의 거짓 일꾼과 모조된 신의 말을 경계하는 바울의 명령 아래 놓이는바, 그때 총독의 경륜론은 신적인 권위-정통성의 레벨을 둘러싼 바울의 투쟁 상대가 되면서 절대성을 잃고 상대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구재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타자화 전략과 탈식민성: 「총독의 소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3, 한중인문학회, 2004, 157-180쪽.
- 미셸 앙리, 『육화, 살의 철학』, 박영옥 옮김, 서울: 자음과모음, 2012.
- 서은주, 「최인훈의 소설에 나타난 ‘방송의 소리’ 형식 연구」, 『배달말』 30, 배달말학회, 2002, 199-219쪽.
- 연남경, 「냉전 체제를 사유하는 방식: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2015, 47-76쪽.
- 장문석, 「최인훈 문학과 아시아라는 사상」, 서울대 박사논문, 2018.
- 정창훈, 『한일관계의 ‘65년 체제’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21.
- 최인훈, 『廣場』, 서울: 정향사, 1961.
- _____, 「總督의 소리」, 서울: 신동아, 1967.
- _____, 「總督의 소리」, 월간 『신동아』, 1967.
- _____, 「總督의 소리 3」, 계간 『창작과비평』, 1968.
- _____, 「總督의 소리 II」, 월간 『중앙』, 1968.
- _____, 「總督의 소리 IV」, 월간 『한국문학』, 1976.
- _____, 『광장 / 구운몽』, 서울: 문학과지성사, 1976.
- _____, 『화두』 1권,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8.
- 칼 슈미트, 『정치신학 2: 모든 정치신학이 처리되었다는 전설에 대하여』, 조효원 옮김, 서울: 그린비, 2019.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상권, 이대우 옮김, 서울: 열린책들, 2000.
-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 「요한복음」(『공동번역 성서』 및 『새번역』[이하 同])
- 「日本国憲法」, 1946. 11. 3. 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2023. 4. 1. 접속
- Carl Schmitt, 1938. *Der Leviathan in der Staatslehre des Thomas Hobbes: Sinn und Fehlschlag eines politischen Symbols*, Hamburg: Hanseatische Verlagsanstalt.

The literary/political imagination of “incarnation”

- Between *The Square*(廣場) and *Whadoo*(話頭), or the Gospel of John, 1:1, as quoted in *The Viceroy's Voice* -

YOON INRO*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tical and cultural patterns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Cold War presented in Choi In-hun's novel *The Viceroy's Voice*, from the viewpoint of theocracy. It was analyzed that the political will (憑敵利我) to benefit 'us' by borrowing the mouth of the 'enemy', the hypothetical Viceroy, interacts with some kind of theological thought. In this way, John 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quoted in *The Viceroy's Voice* is first analyzed as follows. 1) we analyze the situation in which that one sentence justifies the state of universalist domination of post-war Cold War forces ('the state of global civil war'), and 2) is founded as a divine authority that guarantees the state of profit-sharing of indirect power. Then, the state of union with divine authority, the state of 'absolute incarnation' to come again, and the state of providential rule of God that the governor of the Korean Peninsula seeks to restore are defined as a false-salvational alliance of third parties. As a concrete example, the Viceroy's critic of the political culture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the so-called "Peace Constitution" clause), which functions as a central symbol of such an alliance, is analyzed. Lastly, I will analyze the process by which the self-definition of the Viceroy, that is, the self-definition as a Katekon, a person who suppresses the anarchic(for example, 不逞鮮人) in advance, is founded as an ideology for

* Research Professor, NRF.

the revival of Imperial Japan.

Key words : Incarnation, John 1:1, Logos-Politic, Scapegoat, the Interested Party,
Katechon,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